

전북

전북 가을축제, 눈·귀·입으로 즐겨요

김제 지평선, 남원 흥부제, 고창·익산 국화 전주 발효식품엑스포·비빔밥 축제도 기대

전북지역 10~11월 가을축제 일정

Table with 3 columns: 축제명, 기간, 장소. Lists various festivals like 김제지평선 축제, 마이문화제, 전주 비빔밥 축제, etc.

10~11월 두 달간 전북지역에서 농경문화와 지역역사의 흥과 멋,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농촌생활과 벼농사 문화 체험= 농경문화 축전인 김제 지평선축제가 '풍요를 약속하는 생명의 땅! 지평선을 펼쳐라!'라는 주제 아래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에서 막을 올렸다.

보은·행운'을 주제로 오는 27~28일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 등에서 열린다. 주민화합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장소에서 '제10회 전주 국제 발효식품엑스포'(18~22일), '전주 비빔밥축제'(18~21일)도 함께 열린다.

제 20회 남원 흥부제가 '우애·나눔·

을 연다. '밥상의 재발견, 대를 잇는 전복의 맛집' 기획에서는 조상 대대로 손맛을 이어온 장인들이 고유의 요리법을 공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안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20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된 문화체육 마당, 제기차기를 비롯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전래 놀이마당 등 5개 마당에 20개 분야·64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고창과 익산에서는 대표적인 가을꽃인 국화를 주제로 한 꽃 축제가 열려 가을 행락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 생산자연합회에 기술을 이전해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남원 고랭지 명품백합 日 수출길 나서

올해 남원에서 생산된 백합이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수출된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조기호씨 백합 농장(660㎡)에서 생산된 백합이 지난 7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금·일요일에 일본 수출길에 나선다.

남원에서 생산된 백합은 지난 1992년부터 첫 해외수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2900만원의 외화를 획득했다. 남원시는 고랭지의 일교차가 큰 지리적 특성을 살려 화훼 생산단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 '우주식 비빔밥' 밥상 오른다

이달말부터 판매...온라인·관광사·군 납품 추진

전주의 대표적 음식인 비빔밥이 우주식(食)으로 개발돼 곧 밥상에 오른다. 전주시는 '전주 우주식 비빔밥'을 대량 생산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 판매한다.

우주식 비빔밥은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고 최대 2년간 저장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야외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난 발생 때 비상식량이나 군 전투식량, 낚시와 등산과 같은 레저 스포츠용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 생산자연합회에 기술을 이전해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중 판매가는 4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전주시는 이날 기능성 비빔밥과 프랜차이즈용 비빔밥 18종류도 추가로 개발해 선보였다. 기능성 비빔밥은 황당노와 황고 열압 등의 기능이 있어 환각식품으로 보급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용 비빔밥으로는 닭 가슴살 비빔밥·해산물 비빔밥·누룽지 비빔밥 등이 나왔다.



예비 귀농인들의 농사 배우기

수도권 예비 귀농인 30여명이 최근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곰취 재배농가를 찾아 견학을 하고 있다.

수도권 예비 귀농인 30여명이 최근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곰취 재배농가를 찾아 견학을 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전담기구를 신설해 귀농·귀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읍 송내마을앞 급커브 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정읍시가 위험 도로에 대한 선형 개선 사업으로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정읍시는 급커브길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정우면 송내리 송내마을앞 위험 구간(군도 14호선)에 대한 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오는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비 등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로구조를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정우면 주민과 태인면, 칠보면 일대를 찾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물론 교통사고 줄이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군산 전국 학생 전통예술 경연대회 13일 개최

국악에 재능 있는 청소년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한 '제22회 군산 전국 학생 전통예술 경연대회'가 13일 오전 9시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국립 전주박물관은 내년 1월 27일까지 문필가로 유명한 효종부대 영조와 정조 등 역대 조선시대 왕들의 글씨를 감상할 수 있는 '어필(御筆), 왕의 글씨전'을 연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합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전북도지사상과 군산시장상 등 총 35명의 시상자를 선정한다.

(七言詩)를 비롯해 영조의 '영조 사찬첩'과 정조의 세손 시집 작품 등이 선보인다. 특히 '효종 어필'은 효종이 남긴 글씨 중 가장 큰 크기로 보물(1628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국립 전주박물관 '어필(御筆), 왕의 글씨전'

이전 전시에는 효종의 칠언시

정읍시 주민자치 위원회의 역할 합동 워크숍

정읍시는 최근 제2차 정기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제1부에서는 지역 리더십 센터 '함께 이룸'의 조재학 대표가 '주민자치시대, 주민자치 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토코소 방식의 참여형 강의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역할'을 주제로 강의·토코소 방식의 참여형 강의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동별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만들기' 주제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참여속에 각 주민 자치센터를 진단했다.

서해 어업관리단·부안군, 불법어업 일제단속

서해 어업관리단과 부안군이 10월 한달간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벌인다.

서해 어업관리단 무궁화호 5척과 부안군 202 어업지도선이 주야간 불법 어업지도 및 단속에

여하게 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자원남획형·어구변형·어업분명 유발형 어업 등 어업 질서 저해행위이며, 관계 기관 공조로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for SoriQ S20 voice recorder. Features include: TV 시청할 때,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강의들을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화·상담할 때. Includes QR code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liasia) restaurant. Feature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 (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 Includes price list and reservation info.

Advertisement for 유스퀘어사우나 (You Square Sauna). Features: 각종 편의시설, 수영장(침대), 인터넷, 안마기, 세션, 세화. Includes contact info and location.